

교제와 나눔

** 선교교회에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**

- 새가족 환영: 김미현-페터 브뤼히너/한나,레나. 구본민. 장한얼-조한나/장하율
- 병동순회찬양: 다음 주일
- 성탄절 예배: 12월 25일(목) 14시, 유아세례(13시 15분 문답-사랑방), 성찬식
- 송년주일 예배: 12월 28일 주일, 은퇴식
- 송구영신 새벽기도회: 12월 29일(월)-1월 3일(토) 07시 Teestube
- 서리집사 임명동의: 다음 주일까지
- 매일성경 1,2월호가 도착했습니다.
- 멀티미디어부 연말영상 자료 공유 부탁합니다.
- 바이블12: 수요일 21시 30분 복음서, 온라인
- 라합1나라 모임: 12월 16일(화) 10시 30분 박성희 님 가정
- 생일축하: 양귀남, 안희숙, 김병원

◆ 말씀일기 일정

일/시143:1-12	월/시144:1-15	화/시145:1-21	수/시146:1-10
목/시147:1-20	금/유다서1:1-16	토/유1:17-25	일/미가1:1-16

◆ 114 운동-하루(1) 한번(1) 말씀일기 & 성경 (4)장 통독

성경 300독 대행진: 258독 (허지은 개인 2독-한글/독일어)

◆ 예배위원 안내 ◆

	12월 14일	12월 21일	12월 25일	12월 28일
예배기도	권순아	백윤정	공동기도	한상철
안내위원	예배부			
봉헌위원	최수정 강일구			
애찬위원	밥상 둘	밥상 셋	다함께	밥상 넷

42-50호

2025년 12월 14일



Presbyterianische
Missionsgemeinde
Düsseldorf e.V.

“네 자신을 연단하라”(딤전 4:7)



주일예배 11:45 Teestube 소망방
14:00 Mutterhauskirche
유초등부 14:00 Teestube 평화방
청소년부 14:00 Teestube 믿음방
청년부 15:30 Teestube 믿음방

토요기도회 07:00 Teestube 소망방



1983년 5월 8일 창립

담임/ 손교훈 목사 Pfr. Dr. Kyo-Hoon Sohn

☎ 02131-5249 186 HP. 0176-5779 1004

교육/ 이동훈 목사 HP. 01525-2367 629

교육/ 박승은 목사 HP. 0157-3845 5550

선교협력/ 이광열 목사 HP. 0157-7388 7498

뒤셀도르프선교교회

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.de

교회당 주소 Alte-Landstr. 179, 40489 Düsseldorf

주 일 예 배(3.Advent)

인도: 손교훈 목사

※입례송/Eingangslied	왕이신 나의 하나님	다 함 께
※예배부름/Eingangsgebet		인 도 자
※찬송/Gemeindelied	6장	다 함 께
※신앙고백/Glaubensbekenntnis		다 함 께
성시교독/Wechselwort	교독문 117번	다 함 께
찬송/Gemeindelied	99장	다 함 께
기도/Gebet		권순아 집사
찬양/Chor	왕이 곧 오시네	찬 양 대
성경봉독/Text zur Predigt	시편 143:1-12	인 도 자
설교/Predigt	무너지지 않는 기도	손교훈 목사
찬송/Gemeindelied	261장	다 함 께
봉헌/Kollekte		다 함 께
교제/Bekanntmachung	새가족환영	다 함 께
※주기도송/Vaterunser		다 함 께
※축도/Segen		손교훈 목사

※ 표는 일어섭니다.

교회 구조

Ev. Presbyterianische Kirchengemeinde e.V.

Bank: Stadtsparkasse Düsseldorf

IBAN: DE61 3005 0110 1008 4019 01 일반계좌

IBAN: DE49 3005 0110 3007 9500 29 선교관계좌

▶ 손교훈 목사의 말씀일기 시142:1-7 '나의 모든 것'◀

시인은 소리 내어 부르짖는다.

고통 속에 비참함과 원통함을 호소한다.

근심 가운데, 그 영혼이 많이 상했다(1-3).

시인은 특히 외롭다.

주위에 그를 아는 이도 없고,

피하고 기댈 곳도 없고,

그 영혼을 돌보아 주는 이가 하나도 없다(4).

감옥(7) 같은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신세.

힘센 것들이 그를 몰아 세우는데(6),

막다른 골목에서 흘로 마주 서 있는 것 같다.

외로움과 절망이 뒤섞여,

낙심한 채 완전히 주저 앉을 수도 있다.

그러나 시인은 자기 갈 길을 아시는 분께(3)

부르짖어 간구하며, 담대히 고백 또 고백한다.

"오직 주님만이 이 몸이 의지할 분인 것을 나는 압니다.

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.

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"(5, 현대어성경).

'주님은 나의 모든 것'

두려움을 쫓아내고, 외로움도 물리치는

이 위대한 한 마디 고백에 내 온 마음을 실으며,

어느 새 내 입에 흐르는 찬양.

"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, 만족함이 없었네.

나의 하나님 그 분을 뵙 때 나는 만족하였네~"

▶ 지난 주 봉헌 내역(12월 7일-12월 13일)◀

십일조	감사헌금	월정 및 목적헌금
한상철, 이동훈, 이하임, 오수향, 한정우, 서민규, 단주현,	신선영, 전소현, 무명1(아기주심), 무명2	서민규(월정) 김학순(멀티미디어부) 김한진(장학)
총액 2.591,70유로 = 1.261,70(예배당) + 1.330,00(온라인)		